< 별 지 >

우리투자증권이 2014. 12. 15. 본회에 제출한 『New Heart형 ELS』에 대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 청구를 (인용)한다.

< 승 인 조 건 >

1. 배타적 사용권의 범위

○ 만기까지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까지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원금손실조건에 도달(Knock - In)한 적이 없으면 제시수익 지급하고 종료하며

-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있는 경우 남은 1단계와 2단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을 관찰하여 가격 반등 시 손실축소 또는 수익상환이 가능한 스텝다운형 ELS

* 예시) 만기 5년 = 1단계(3년) + 2단계(2년)

2.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 3 개월

붙 임 : 1.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2. 신상품 설명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신청회사명	우리투자증권	신청일자			
부서명	상품지원부	창안자 성명	배윤정	전화번호	02)768-7257
		E-Mail	yjbae7@wooriwm.com	팩스번호	0505-083-2834
신청 상품명	New Heart형 ELS				

【신상품의 주요내용】

- 기존 스텝다운형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조건(Knock-In)에 도달하였을 때, 만기까지 주가가 만기상환 Barrier(일반적으로 최초기준가격의 80~85%)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원금손실발생.
- New Heart형 ELS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두 단계.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으면 1단계 내에서 수익상환하고 상품이 종료되어 만기가 3년짜리 스텝다운형과 같지만,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2단계까지 확대하고 상환 Barrier가 계속 낮아지는 조기상환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기존 스텝다운형 ELS에 비해 수익상환확률은 높아지고 원금손실확률은 낮아짐.

【배타적 사용권 인정 범위】

- 기본적인 손익구조는 스텝다운형이면서 만기까지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까지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으면 제시 수익률을 지급하고 종료,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 투자를 2단계까지 유지하여 원금손실 축소 또는 수익상환 기회를 추가로 보유하는 ELS.

[예시]

만기 5년	1단계 (3년)	2단계 (2년)
손익구조	95/95/90/90/85/85-60 KI	80/80/75/75

【배타적 사용권 인정근거】

- 현재까지 발행된 ELS 상품들을 확인해본 결과 만기까지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으면 조기상환에 유리하도록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도달한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확대하여 주가 회복의 기회와 추가적인 조기상환기회까지 부여하는 상품 없었음.
- 기존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와 비교하여 상품의 수익성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스텝다운형 ELS의 가장 취약적인 Knock-In이벤트 발생 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강화하였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1조에 의거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14 년 12 월 11 일

우리투자증권 대표 김 원 규 (인)

신상품 설명서

1. 신상품 개발 개요

【신상품 개발배경】

- 과거 금융위기 이후 종목형 ELS를 중심으로 대규모 Knock-In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최근 원금손실로 만기 도래한 상품들이 많았음. 2014년 9월~10월 '차화정'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형주의 주가 하락에 따른 Knock-In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대. 지수형 ELS 투자에 있어서도 가격 부담과 낙인 우려로 11월~12월 ELS 발행량 감소.
- ELS의 원금손실상환은 발행증권사에도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 상처가 되어 시장 위축의 원인이 됨. 특히, 발행된 ELS의 기초자산들은 지수 또는 업종 대표 대형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지만 만기가 정해져있어 원금손실이 확정되면 안타까운 상황. 이에 Knock-In 이벤트 발생 시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늘여 수익상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끝에 Knock-In 발생 시 투자기간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조기상환기회를 부여하는 New Heart형 개발.

【신상품 내용(구조) 및 특징에 대한 상세 설명】

1. 주요특징
- 만기까지의 기간이 두 단계로 나눈 구조.
-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조건이 도달한 적이 없으면 1단계에서 상품을 종료하지만,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2단계까지 확대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한 추가적인 조기상환기회를 부여.
- 1단계까지는 dummy까지 존재하여 기존 스텝다운 조기상환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Knock-In 발생 시에는 원금손실확률이 높아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형태.

2. 상품조건(예시)
- 기초자산 : HSCEI / EuroStoxx50
- 만기1 / 만기2 / 상환평가주기 : 3년 / 5년 / 매 6개월
- 상환배리어 : 원금손실조건 도달 전 95/95/90/90/85/85 - 60 Knock In (더미있음)
  원금손실조건 도달 시 95/95/90/90/85/85/80/80/75/75
- 연 수익률 : 연 8.50%

3. 수익구조상세(예시로 사용한 상품조건 기준)

(1) 자동조기상환

1)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어, 투자기간이 1단계까지 적용되는 경우

n차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Yn% 이상이면
→ 원금 X {100% + (n X 8.50 / 2)%} 지급 후 종료
* n = 1 ~ 6 , **Yn = (95,95,90,90,8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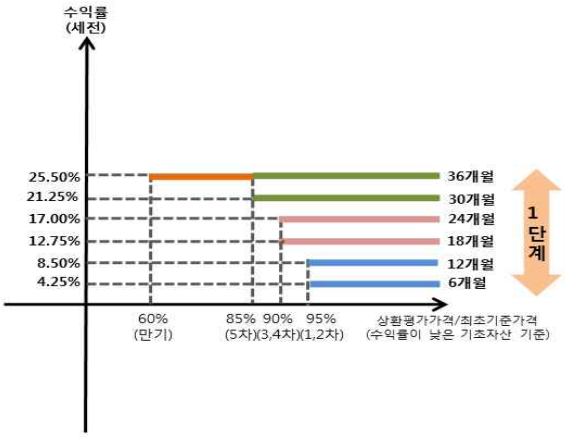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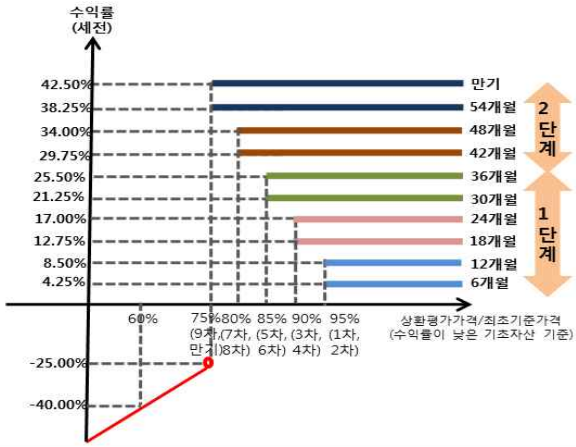
2)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있어, 투자기간이 2단계까지 적용되는 경우

n차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Yn% 이상이면
→ 원금 X {100% + (n X 8.50 / 2)%} 지급 후 종료
* n = 1 ~ 9 , **Yn = (95,95,90,90,85,85,80,80,75,75)

(2) 만기상환

a. 만기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이면
→ 원금 X {100% + (N X 8.50 / 2)%} 지급

b. 만기평가일 종가기준으로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이면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는 경우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있는 경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투자기간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6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조기 상환조건	(1) 1,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인 경우	연 8.50%
	(2) 3,4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90% 이상인 경우	연 8.50%
	(3) 5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85% 이상인 경우	연 8.50%
	(4) **6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연 8.50%
투자기간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6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조기 상환조건	(1-1) 1,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인 경우	연 8.50%
	(2-1) 3,4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90% 이상인 경우	연 8.50%
	(3-1) **5,6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85%이상**인 경우	연 8.50%
	(5) 7,8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80% 이상인 경우	연 8.50%
	(6) 9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75% 이상인 경우	연 8.50%
만기 상환조건	(7) 만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75%이상인 경우	연 8.50%
	(8) 만기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 대비 75%미만인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 (손실률=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	-25%~-100%

【신상품 개발 기대효과】

□ 기존의 ELS 상품 대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New Heart형 ELS는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으면,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베리어 이상만 되면 최대 3년 투자에 더미 수익률을 받음.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상환베리어와 낙인베리어 사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에도 3년 안에 수익 상환이 가능. 그러나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자 기간을 2단계까지 확대하여 기초자산 관찰기회와 추가적인 조기상환기회가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남. 따라서 만기 3년 상품이었다면 ELS의 원금손실로 확정되는 case들이 다시 살아나 수익 상환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Back-testing 결과 New Heart형 ELS의 원금손실확률을 일반 스텝다운형 보다 낮음.

  [Back-testing 결과 사례]

	일반 스텝다운형	New Heart형
수익상환확률	83.47%	89.05%
원금손실확률	16.53%	10.95%
합계	100%	100%

※ *Back-testing 기간 : 2001.12.05.~2009.12.05*

- 과거 원금손실상환 시 주식상환을 했던 case들 중에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원금을 회복한 대형주들의 사례가 있었으며 만기 연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청도 많았음. 이는 대부분의 ELS 기초자산들이 지수형 또는 대형주로 투자기간이 확대되면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방증. New Heart형의 경우 낙인 60미만 수준에서 만기 상환베리어인 75%선까지만 회복하면 '원금+더미수익'의 높은 투자 수익율을 기대 가능. Knock-In이 발생할 경우 상품에 새로운 심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은 New Heart형 ELS는 Back-testing결과에서 보여주는 수치적인 개선 외에도 실질적으로 ELS 투자자 개개인들에게 안정감과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

2.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항목별 인정근거

【기존 국내외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독창성 정도】

- 현재까지 발행된 ELS의 구조와 상품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하여 원금손실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기간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조기상환기회를 주는 상품 없었음. New Heart형의 경우 만기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적이 없으면 1단계의 마지막 자동조기상환조건을 낙인베리어 수준까지 크게 낮춰 조기상환성을 높이지만,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2단계까지 확대하여 주가 회복의 기회를 주며 매 6개월마다 상환조건이 완화된 조기상환기회가 있어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
- 만기 5년의 스텝다운형 ELS라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지부진하여 조기상환 연장이 연속되는 경우 더미 수익으로 상환하는데 3년 만기 상품보다 오래 걸리고 유동성과 투자회수성이 떨어질 수 있음. New Heart형의 경우에는 Knock-In 이벤트가 발생하여 주가가 회복할 시간적 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투자기간이 확대. 정상적인 시장 사항 하에서는 기존 스텝다운형의 장점을 가지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보강한 상품.

【금융시장의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 정도】

- 금융위기이후 종목형 ELS를 중심으로 스텝다운형 ELS의 대규모 낙인이 발생하였으며, 원금손실상환 사례가 많았음. 이에 2012년 종목형 ELS의 발행비중이 전체의 30%수준에서 2014년 9월 1.1%, 10월 최초로 0%를 기록할 정도로 종목형 ELS 시장 축소. 최근 은가격의 하락에 따른 DLS 낙인에 대한 공포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이 올 땐 지수형 ELS 낙인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스텝다운형 ELS의 경우 저금리 시대 예금 대신 투자할 만한 확정수익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Knock-In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어 ELS 시장의 위축이 우려됨.
- New Heart형의 경우에는 Knock-In이 발생하면 투자기간이 확대되고 추가적인 조기상환기회가 생겨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 원금손실확률을 줄일 수 있음. 이에 기존 스텝다운형보다 Knock-In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위축되었던 종목형 ELS 및 고수익형 ELS 시장의 확대로 다양한 ELS 상품 공급을 통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편익제고 정도】

- 스텝다운형 ELS에서 Knock-In 옵션은 상품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요소로 불가피하며, 주가가 -40%~50%로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수익성을 높여주므로 유리. 그러나 Knock-In 발생에 따른 원금손실 사례가 많으며, -30,40% 이상의 큰 폭으로 원금손실 되는 스텝다운형 ELS 상품의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음. 이에 투자자들은 점점 보수적 투자 성향이 짙어져 저낙인 ELS와 지수형 ELS만 선호(2014년 10월 ELS 발행 비중 중 지수형이 100%, 종목형 0%). 최근 장외파생시장의 변동성 저하로 저낙인 상품이 안정성 대비 수익률이 많이 감소하였음. (45KI : 연4.80%, 60KI : 연8.70%) New Heart형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조건에 도달한 경우에만 투자기간을 확대하고 조기상환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안정성을 보강. 안정성이 강화되었음에도 일반 스텝다운형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나쁘지 않아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ELS 투자 가능.
- 또한 ELS는 Knock-In이벤트 발생 시 ELS 평가가격(기준가)이 단기간에 -30%~40%이상 하락. New Heart형의 경우 낙인 발생 시 투자기간이 확대되고, (마지막 낙인 관찰일인 6차조기상환평가일에 낙인에 도달하더라도 약 2년간의 투가 기간有) 추가적인 수익상환의 기회가 있어 ELS 기준가에도 긍정적 요소. 일반 스텝다운형 ELS의 평가가격에 비해 유리할 수 있음.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투입 정도】

- 최근 3년간의 ELS 상품의 유형별/기초자산별/수익률 발행량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의 상품 선호도를 분석하고, 지점 영업직원들의 의견과 과거 ELS 이슈 사항에 대해 분석. 시장상황과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 6개월간 지속적인 세미나와 스터디를 시행하였으며 신상품 발행을 위해 6명의 팀원 전원이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투입.
-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한 부킹 시스템, 평가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EMS 및 SMS 등의 전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
- 투자자 이해와 완전판매프로세스를 위한 상품설명서 자료 및 공시문서, 계약서 등 자료 작성 완료.